

##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통전적 구원사상

노 승 욱\*

### 논문초록

이 논문은 황순원의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城)』에 나타난 통전적(統全的·holistic) 구원사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화기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서북지역 출신인 황순원은 서북지역의 기독교계 학교를 거치면서 기독교사상을 내면화하였다. 서북지역의 기독교는 미국 북장로교의 영향 가운데 초교파적 복음주의와 교리적 포용주의, 그리고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 등이 결합된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움직이는 성』에서는 샤머니즘과 함께 기독교가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현세적 구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비(非)통전적 유랑민 근성을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구원과 함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모두 중시하는 통전적 구원사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혼과 육체의 통전적 구원의식은 월남작가 황순원이 남한에서 오랫동안 출석했던 오순절주의교회의 구원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황순원이 이 소설에서 나타내고자 한 통전적 구원사상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구제와 치유, 자활 등이 강조되는 전인적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통전적 구원사상, 서북지역, 미국 북장로교, 오순절주의교회, 샤머니즘, 유랑민 근성, 전인적 구원

---

\* 서울시립대학교 국문학 강사

2011년 8월 15일 접수, 9월 16일 수정, 9월 17일 게재확정.

## I. 서론

황순원의 장편 『움직이는 성(城)』<sup>1)</sup>(1973)은 작가의 기독교적 세계관, 보다 구체적으로는 작가의 ‘통전적<sup>2)</sup> 구원사상’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전적 구원사상은 통전적 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통전적 신학은 모든 것을 방법론적으로 통합해서 온전함(Wholeness)에 이르고자 하는 신학사상이다. 또한 이 사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각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와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 폭넓게 미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김명용, 2004: 53-54). 통전적 신학사상은 기독교의 핵심가치인 사랑의 구현에 있어서도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전인적으로, 그리고 통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지향한다<sup>3)</sup>. 현대신학에 있어서 통전적 구원사상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넘어서 생태구원으로까지 그 인식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허호익, 1993: 434).

황순원이 『움직이는 성』에서 통전적 기독교사상을 표출하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그가 서구문물의 세례를 일찍 받은 서북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그의 부친이 기독교 학교의 교직자이면서 교회의 장로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김윤식·김현, 1992: 241). 개화기의 한국은 미국 주류 교단, 즉 남·북 장로교와 남·북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도한 선교지였다(류대영, 2001: 27). 특히 서북지역은 당시 그 지리적·정치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타 지역보다 기독교가 활발히 수용되었는데, 주로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에 의한 포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sup>4)</sup>. 서북지역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 
- 1) 황순원은 『움직이는 성』을 1968년 5월부터 『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972년 10월에 연재를 완료하였다. 그후 1973년 5월에 삼중당에서 첫 단행본을 간행하였고 생애 마지막 전집발간을 했던 문학과지성사에서 1980년 재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본은 문학과지성사판 황순원전집 재판본(1989)이다.
  - 2) 통전적(統全的) 신학의 영어 표기인 ‘홀리스틱(holistic)’은 온전함과 관계가 깊은 단어이다. 통전적 신학은 가능한 한 모든 진리를 통합해서 온전한 신학을 형성하고자 하는 신학이다(김명용, 2004: 54).
  - 3) 최창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전인적·통전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최창국, 2004. 5: 323).
  - 4) 1890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은 평안도가 자립적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중앙정부나 성리학적 질서에 대한 반감이 높아 선교사업을 벌이는 데 알맞은 지역이라 생각하고 평양, 선천, 강계를 중심으로 선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체제의 수립을 갈망하던 평안도는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에 헌신적이었는데 그 결과 1936년 중순에는 전국에서 운영하는 총 11곳의 학교 중에서 5곳을 서북지역에서 운영하기에 이른다(안중철, 2010: 114). 황순원이 5년간 다녔던 평양의 송실중학교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중의 하나였다<sup>5)</sup>.

황순원이 재학할 당시 송실중학교의 교장은 선교사 맥쿤(George S. McCune)이었는데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평안남도 학무국에 의해 해임당한 인물이다<sup>6)</sup>. 이는 당시 언더우드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장로교 선교사들과 기호지역에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안중철, 2010: 72-75). 황순원은 송실중학교로 전학하기 전에 오산중학교에 입학해서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 교육자이자 민족운동가였던 남강 이승훈으로부터 큰 정신적 영향을 받게 된다<sup>7)</sup>. 결국 황순원은 오산중학교와 송실중학교를 거치면서 민족주의가 결합된 서북지역 기독교관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관은 개인의 구원을 민족과 사회로 확장시켜 바라보는 통전적 기독교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황순원이 유년시절을 거쳐서 송실중학교에 재학했던 20세기 초 서북지역의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계예양(敎界禮讓)<sup>9)</sup>정책에 의해 이곳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들

기독교의 세례를 받으면서 문명개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1898년 당시 한국장로교회 전체 교인 7천 5백여 명 가운데 서북지역의 교인 숫자가 5,950명으로 무려 79.3%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서북 주도 양상은 일제시기 내내 계속되었다(김상태, 1998 겨울: 176-179).

- 5) 송실중학교(Sung Sil Boy's Academy)는 1928년 5월 23일, 총독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공립 고등 보통학교에 준하게 되었다(Harry A. Rhodes, 1934: 166).
- 6) 맥쿤 선교사가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주된 이유는 신사참배의 신도의식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명령에 대한 제사라는 점이었다(안중철, 2010: 72).
- 7) 황순원은 오산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송실중학교로 전학하였는데 오산중학교 시절 남강 이승훈의 이미지는 그의 문학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자전적 단편소설 『아버지』에서 남강 이승훈과 자신의 부친 황찬영에게서 ‘늙을수록 아름다워지는 남자의 이미지’를 발견해내고 있다(황순원, 1992: 124-129).
- 8) 박용규는 황순원이 어린 시절부터 체험했던 정신적 세계관의 특징을 평등주의, 민족주의, 계몽주의 등이 결합된 서북지방의 기독교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용규, 2005: 189).
- 9) 1893년 설립된 “장로교 정치체제를 쓰는 선교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에는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등이 가입하였다. 선교공의회의 협의 결과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는 이미 서울과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 지역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는 미개척지역인 전라도와 충

파송했던 미국 북장로교의 신학과 사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북장로교가 한국선교 4반세기 행사를 벌였던 1909년에는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40명이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프린스턴신학교와 맥코믹신학교 출신이었다<sup>10)</sup>. 당시 미국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영향 가운데 한국에 입국한 이들 두 학교 출신 선교사들은 해외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교육받은 인물들이었다(조경현, 2006: 121). 특히 맥코믹신학교 출신 선교사들은 평양신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서북지역의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11)</sup> 그런데 당시 맥코믹신학교는 정통적 장로교 신학과 신앙고백을 고수하기보다는 초교파적 복음주의와 교리적 포용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허순길, 2008: 82-91). 그 결과 서북지역의 기독교는 감리교와의 연합사역과 교리적 조화를 꾀할 만큼 포용적 자세를 내비치고 있었는데<sup>12)</sup> 이러한 탈교파적·탈교리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복음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통진적 기독교사상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왕의 작품 속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드러낸 작가<sup>13)</sup>라는 평가를 받고

---

청도 지방을 선교지역으로 할 것에 합의했다. 그리고 1914년의 협의에 따라서 경상남도 전지역은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맡기로 하였다. 선교회 상호간의 협의체 구성과 선교구역 분할은 장로교 선교회와 감리교 선교회 간에도 이루어졌다. 1905년에 장로교의 4개 선교회와 미국 감리교 선교회와 미국 남감리교 선교회가 모여 “한국개신교복음주의선교총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of Korea)”를 결성하였다. 1892년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감리회 사이에 최초로 체결되었던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지 분할 협정은 1910년에 이르러서 거의 완료되었다(허순길, 2008: 96-99).

- 10) 1909년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일곱 개의 다른 신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에 프린스턴(Princeton) 출신이 16명, 맥코믹(McCormick)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다(허순길, 2008: 82).
- 11) 평양신학교의 설립자요 조직자인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 Moffett) 선교사와 한국어로 50권, 영어로 6권 등 신학저술의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평양신학교 교수 궤안련(郭安連, Charles A. Clark) 선교사 등은 모두 미국 맥코믹신학교 출신들이다(간하배, 2007: 23-26).
- 12) 맥코믹신학교 출신으로 한때 교회일치위원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던 평양신학교 주경학 교수 스왈론(蘇安論, W. L. Swallon)은 “한국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그 교리의 조화를 찾는 데 어려움이 개재한다고 보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이들의 복음주의는 아르미니안주의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철두철미한 신앙고백적 개혁주의자들이 아니고 전형적인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었다(허순길, 2008: 86).
- 13) 김병익은 황순원이 『움직이는 성』을 통해 한국인의 근본적인 심상이 어떠한가라는 매우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왕의 작품 속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드러낸 이 작가에게 이 질문은 아마 기독교적 발상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김병익, 1973: 49).

있는 황순원에게 있어서 『움직이는 성』은 민족과 사회에 대한 문제를 통전적 구원사상을 대안으로 풀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소설이다. 황순원이 이 작품을 통해서 시종일관 천착하고 있는 문학적 주제는 바로 ‘유랑민 근성’과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은 이 작품에서 통전적 구원사상을 구현하고자 하되 그 대상이 되는 영역을 우리민족의 정신세계와 그 정신이 반영된 실생활에서 찾고 있다. 이 소설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대립관계도 우리민족의 정신세계와 실생활의 이중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설정한 독특한 서사구조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의 통전적 구원사상을 논할 때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이 소설에서 영혼 구원과 함께 육체의 치유를 목사의 직무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체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치료하는 능력인 신유(神癒)를 사도시대 이후에도 인정하면서 영혼 구원과 신유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기독교 교파는 오순절주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이다<sup>14)</sup>. 그런데 오순절주의신학은 장로교신학과는 다른 측면에서 통전적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성령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합일을 체험하는 신비가 ‘통전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배현성, 2002, 174-175). 황순원은 남한에서 오랫동안 오순절주의를 대표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였으며<sup>15)</sup> 그의 장례예배도 같은 교회의 주관으로 치러졌다. 북한 서북지역의 장로교인이었던 황순원이 남한에서 오순절주의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구원까지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그의 통전적 의식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황순원 소설과 기독교와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는 종종 있어 왔지만<sup>16)</sup>

14) 하나님의 성회의 대표적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강조하는 전인적 영성은 사람들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물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강건함이 깃들도록 유도하는 영성이다(배현성, 2004: 89-90).

15) 필자가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적관리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황순원은 1964년 4월 9일에 순복음중앙교회(지금의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등록하였다. 또한 그의 부인 양정길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권사회장직을 역임했다. 소설가 오유권도 황순원의 교회(古稱)를 축하하는 글에서 그가 황순원 부인의 전도로 순복음중앙교회에 출석하여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신앙을 천주교로 다시 환원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오유권, 1985: 43).

16) 황순원 소설의 기독교적 특성에 대해 천착한 최근의 연구로는 류광현(2010)의 “황순원 장편소설의 기독교적 상상력 연구”와 정영훈(2007)의 “황순원 장편소설에 나타난 악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구원사상의 본질적 특성을 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적 특성들이 종교적 차원의 기독교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일반적 측면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사상은 신학적·교리적인 측면에서 지리적·문화적인 측면까지 매우 다양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구원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신학적·교리적인 배경과 함께 지리적·문화적 특성이 함께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북지역의 장로교적 기독교관의 영향을 받고 월남하여 남한에서 오순절주의교회의 교인으로 생을 마감한 황순원의 구원사상을 그의 장편소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황순원의 기독교적 구원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품인 『움직이는 성』의 작품분석을 통해서 그의 구원사상을 통전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전적’이라는 신학용어는 ‘전인적’ 혹은 ‘통합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황순원의 소설에서는 기독교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비종교적 주제들에 있어서도 전인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사유가 자주 나타난다. 매우 상반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지양하는 특성은 황순원 소설의 보편적 특징이자 독특한 미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노승욱, 2010: 18). 대립되는 성향마저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황순원 소설의 특징은 작가의 세계관이자 종교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전적 구원사상을 그 뿌리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황순원 소설의 구원사상을 ‘통전성’의 개념과 시각으로 논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II. 비(非)통전적 유랑민 근성 비판

『움직이는 성』에서 황순원은 한국인의 ‘유랑민 근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작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적·종교적 뿌리로서의 유랑민 근성이다<sup>17)</sup>. 유랑민 근성이 원형적인 종교형태로 나타난 것이 샤머니즘인데, 이 샤머니즘은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모든 종교에 근원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18)</sup>. 이 작품에서 나타

나는 기독교 비판도 실제로는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는 샤머니즘적 요소들, 다시 말해서 샤머니즘의 종교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유랑민 근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소설은 샤머니즘적 기독교와 정통적 기독교 사이의 대립이 중요한 갈등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김미현, 1999. 2: 215).

이 소설에서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랑민 근성은 작가의 통전적 구원사상과 대립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유랑민 근성은 이 소설의 기본적 대립항이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과 기독교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이 소설에서 유랑민 근성은 자신과 타인의 존재론적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현세에서의 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정신적 태도로 형상화되고 있다. 황순원은 유랑성을 단지 정주성(定住性)과 그 문화에 대한 반대적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다. 그는 유랑성을 책임 있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신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있다(노승욱, 2005: 140).

유랑민 근성으로 인해 진정한 구원을 추구해야 할 기독교마저도 현세적 구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현실을 이 소설은 비판하고 있다. 이는 현세와 내세가 통전적으로 인식되지 못함으로 인해 비롯된 현상인 것이다. 유랑민 근성의 비통전성은 현세와 내세의 단절적 인식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유랑민 근성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도 비통전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소설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물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유랑민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아가페적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이 소설은 비판하고 있다.

“아니,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소? 그 돈은 내가 하나님한테서 맡아둔 것뿐이란 말요. 그 돈이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구 있소. 만약 그 돈을 제날짜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게 맡긴 전재산을 거둬가실 거요. 그래두 종단 말ियो? 어림없

17) 황순원은 『문학사상』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움직이는 성』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밑바닥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유랑민 근성이었다고 말하고 있다(황순원, 1972: 321).

18)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해리 로즈(Harry A. Rhodes)는 50년간의 한국선교사를 정리한 자신의 저서,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에서 한국인의 종교적 토대를 샤머니즘 혹은 선하거나 악한 영들에 대한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기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인 기포드(D. L. Gifford) 역시 “귀신 숭배가 한국의 종교”라고 언급하고 있다(Harry A. Rhodes, 1934: 50).

는 소리! 제날짜에 갇지 않을 땐 별수없이 법적으로 처리하는 도리밖에 없소.” “이 고비만 넘기면 어떤 전망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발 얼마 동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깐 난 모르겠소(황순원, 1989: 257).”

위의 인용문에서는 기독교의 장로이자 유력한 자산가인 한장로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한장로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30대 사내가 빚상환일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협박조로 사내를 다그치고 있다. 한장로는 사내에게 그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고, 그 돈이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있으며, 만일 제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자신에게 맡긴 전재산을 거두어가실 것이라고 사내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장로는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그 어떤 자비나 관용도 베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언제나 “웃음기가 떠나지 않고 부드럽던” 한장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져있는 것(황순원, 1989: 256)”도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통전적으로 연합되고 있지 못한 그의 비통전적 유랑민 근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통전적 유랑민 근성은 한장로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민구에게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민구가 기독교 세례교인이 되어 한장로의 딸 은희와 결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장로의 막강한 재력 때문이다. 기독교에 입교하면서 민구는 그 어떠한 속죄의식이나 구원의식도 갖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현실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기에 무속연구자인 민구는 기독교 교역자인 친구 성호에게 약혼식 주례를 부탁하면서 “이번 약혼이 어찌면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약혼식이 될는지 몰라(황순원, 1989: 13)”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와 샤머니즘을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민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은 통전적으로 인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일 뿐인 것이다.

민구는 심지어 자신의 무속 연구를 위해 박수무당 변씨와 동성애적 행각을 벌이기까지 한다. 그는 자신의 무속 연구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면에서 다소 어긋나는 일을 저지른다 해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황순원, 1989: 307)”한다. 심지어 그는 변씨에게 대감거리 실습을 배우면서 신비주의적 황홀경을 체험한 후에 ‘당굴교’란 교를 세우겠다고까지 말한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 세례교인이 되기도 하고, 동성애적 관계를 갖기도 하고, 신들린 교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모



든 것이 비통전적 유랑민 근성으로부터 말미암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와 샤머니즘을 오가는 민구는 약혼녀 은희 때문에 잠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친구인 준태는 그러한 민구의 태도를 유랑민 근성이라고 비판하며 일침을 가한다. 그렇지만 민구는 준태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유랑민 근성에 더욱 매몰되는 모습을 보인다.

민구가 이처럼 고민하는 데에는 역시 그 자신이 은희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네와 헤어질 수 없다는 심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언뜻 했다. 그러자 준태의 얼굴이 불쑥 나타나면서 다문 입을 움직이더니, 네 그 상황이 바로 유랑민근성에서 온 거야, 그걸 자각해야 해, 하고 일갈한다. 민구는 얼른 외면한다(황순원, 1989: 335).

준태는 민구의 유랑민 근성을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그 자신은 또 다른 유랑민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현대적 한국 지성인의 전형인 준태(이기서, 1977. 9: 592)는 자신과 같은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창애와의 결혼생활 중에 아이를 갖는 것을 회피한다. 그는 결국 창애와 이혼하지만 온전히 못한 자신을 사랑해주는 지연의 마음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강원도 고산시험장으로 직장을 멀리 옮긴 후에 천식 증세가 악화되자 산속 초막에서 여자무당과 동거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한다. 준태가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나,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 모두를 외면한 채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여자무당과 동거를 한 것은 그가 어떤 누구와도 통전적인 관계 속에 책임 있는 사랑을 나누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태는 지연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지연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유랑적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준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지연과의 사랑을 저버림으로써 서로에게 구원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하고 만 것이다(노승욱, 2005: 148).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윤성호와 그의 친구인 송민구, 함준태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세 인물 중에서 목사인 성호와 그의 친구 민구는 기독교신자이다. 그런데 성호가 점차적으로 통전적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데 반해 민구는 점점 더 비통전적 종교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무신론자인 준태는 비통전적 유랑민 근성을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 역시 통전적인 사랑의 관계를 그 누구하고도 맺지 못한다. 그렇지만 준태와 민구를 통해 드러나는 유랑민 근성은 변별적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민구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신앙과 사랑마저도 이용하는 유랑민 근성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에 비해 준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유랑적 삶을 선택했던 것이다. 황순원은 이 소설에서 유랑민 근성을 극복해가는 성호 뿐만 아니라 유랑민 근성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한 민구와 준태의 비통전적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피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 III.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구원의식

『움직이는 성』에서는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통전적 구원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순절주의신학에서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출현하여 특히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오순절주의는 복음의 육체성과 세상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시켰다(김명용, 2004: 54). 오순절주의의 전인치유신학은 치유를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치유란 하나님을 떠나서 무질서, 분열, 소외, 부조화 그리고 파편화 속에 내던져진 비정상적인 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당시의 정돈, 온전, 조화, 그리고 평화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김판호, 2007: 58). 이 소설을 집필할 때 황순원은 대표적인 오순절주의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sup>20)</sup> 작품 속에서 확인되는 영혼과 육체의 통전적 구원의식과 오순절주의신학의 통전적 구원관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윤성호는 장로교 합동측의 교역자로 등장하고 있다. 장로교 합동측은 개혁주의신학을 교리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 교파이다<sup>21)</sup>. 그런

19) 박배식은 준태와 민구가 유랑민 근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정신적으로 좌절해가는 젊은이들의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면, 성호는 그 물음에 진실된 인간의 모습으로 응답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박배식, 1998. 12: 81).

20) 필자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황순원은 1964년 4월 9일부터 등록교인으로 순복음중앙교회(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는 1968년 5월부터 『움직이는 성』 제1부를 『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972년 10월에 연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1973년 5월에 삼중당출판사에서 『움직이는 성』을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결국 그는 등록교인으로 순복음중앙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이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단행본을 출간하였던 것이다.

21) 장로교 합동측의 신학은 개혁주의신학자 박형룡(朴亨龍)에 의하여 대변되어 왔다. 박형룡의 신학

데 소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호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장로교 합동측의 신학과 교리에 바탕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주인공 성호의 기독교적 입장이 전통적인 장로교의 개혁주의신학과 칼빈주의교리에 입각해 있기보다는 탈교파적이고 탈교리적인 기독교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호는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양분되어 있던 두 장로교 교단의 “차이같은 것은 의식하지 않(황순원, 1989: 58)”은 채 장로교 교단의 분립현상을 단순히 “파벌의식(황순원, 1989: 58)”의 산물로 여긴다. 이러한 성호의 탈교파적·탈교리적 태도는 황순원이 일찍이 영향을 받은, 미국 맥코믹신학교 출신 선교사들이 견지하고 있던 서북지역의 기독교관과 일치하는 것이다<sup>22)</sup>.

소설 속에 묘사되고 있는 성호의 기독교관은 교리나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개인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보다는 분리되어 인식되는 가치나 영역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 성호가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리되어 있던 장로교의 교단 통합에 앞장선다든가, 조상제사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추모로 해석한다든가, 울면서 고개와 손을 내두르는 통성기도와 조용하게 기도하는 골방기도 중에 각자 원하는 대로 어느 쪽을 따라도 괜찮다고 말한다든가, 자신의 성도 명숙의 질병을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해주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한다든가 하는 등의 태도는 통전적 기독교관

---

은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의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신학에는 프린스턴 신학의 3대 특징인 개혁신조학적 강조와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성의 주장과 변증학 분야에 있어서 보편이성론적인 과학적 경험주의가 모두 존재한다. 또한 그의 신학에는 미국 화란계 개혁주의신학자 벨코프의 영향 아래 카이퍼와 바빙크 등 화란 개혁주의신학자들의 사상도 나타나고 있다(박아론, 1991: 64-65).

- 22) 평양신학교는 ‘한국의 맥코믹신학교’라고 불릴 만큼 미국 북장로교 소속 맥코믹신학교의 영향이 컸다. 당시 맥코믹신학교가 위치하고 있던 시카고는 미국 전역에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Dwight L. Moody)의 영향이 강한 도시였다. 이러한 영향 가운데 맥코믹신학교는 역사적 신앙고백의 강조보다는 광범위한 신학적 문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신학생연합회(The Theological Student Association)”가 1897년에 맥코믹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바 있고, 이 연합회가 초교과 청년단체인 YMCA 학생영역 신학분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맥코믹신학교의 초교과적 복음주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 1905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재한 개신교복음주의 선교총공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를 조직하고 양 선교회가 “조선 그리스도 교회(The Church of Christ in Korea)”를 세우기로 결의했을 때 맥코믹 출신의 대표적 선교사인 모펫(馬布三悅, Samuel A. Moffet)은 어떤 부정적 입장으로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맥코믹 출신이요 평양신학교 주경학 교수였던 스왈론(蘇安論, W. L. Swallon)은 교회일치위원회의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허순길, 2008: 85-86).

으로부터 말미암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숙의 질병에 대해서 성호가 나타내는 신유에 대한 입장은 그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구원사상을 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성호가 매일같이 심방을 갔으나 아무런 효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성호는 옆집 아낙네의 빈정대는 소리를 칸막이벽을 통해 몇차례 들어야 했다. 예수쟁이가 뭘 안다구 찢절대노, 생사람 미치게 해놓구서. 성호의 심중은 착잡했다. 종내 명숙 어머니는 무당을 다시 불러다 곳을 해보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드디어 명숙은 정수리에 종지뚜껑만큼의 대머리가 된 채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성호의 심중은 착잡했다. 기독교가 이땅에 들어온 이래 많은 교역자가 인간의 병을 고쳐왔다. 그것이 포교의 큰 힘이 됐다. 불교만 해도 신라 미추왕 때, 아도라는 중이 불교를 전파하려 하다가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공주의 병을 고쳐 줌으로 해서 불교 전파의 허락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교역자의 최고 임무가 아님은 말할것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반신불수나 소경도 아닌 한갓 신경의 과로 아니면 정신적인 불안같은 데서 온 게 분명한 명숙의 병에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만 것이다(황순원, 1989: 119).

위의 인용문에서 기독교 교역자인 성호는 병명도 모르는 채 앓아누운 명숙을 매일 같이 심방한다. 중류집 딸로서 시내에서 여학교를 다니며 고전무용까지 배우던 명숙은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사하면서 가세가 기울자 삶의 유일한 즐거움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삼아오던 소녀이다. 명숙은 성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반사를 맡아보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교회로 많이 전도하였지만 병명도 모르는 채 자리에 몸져눕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성호의 심방을 ‘효험’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기독교 교역자인 성호의 심방 목적이 환자의 쾌유를 비는 기원과 위로에 있기보다는 병을 직접적으로 낫게 하는 데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심방을 갔으나 아무런 효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요법의 하나로 신의 힘을 빌어 병을 고친다는 신유의 능력을 기독교의 포교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성호의 인식은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하나로 인식하는 통전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호는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된 이래 많은 교역자가 인간의 병을 고쳐왔다고 확신한다. 성호는 병을 고치는 것이 교역자의 최고 임무는 아님을 말하면서도 반신불수나 소경도 아닌 한갓 신경의 과로나 정신적인 불안같은 데서 온 명숙의 병에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만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호의 괴로움은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아닌 명숙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하

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무능력함에 대한 성호의 인식은 곧 바로 사랑의 부족과 인간적 미숙함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진다.

성호는 사뭇 괴로웠다. 내립곳이 있기 전 얼마 동안 자기는 명숙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던가. 그저 교역자로서의 관습적인 심방을 했을 따름이 아니었던가. 왜 좀더 진심에서 우리나라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을까. 성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이 교역자로서 부족함은 물론, 우선 한 인간으로서의 미숙함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황순원, 1989: 119-120).

인간의 영혼 구원과 육체의 치유를 전인적으로 인식하는 성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전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명숙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목회자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성호의 인식이 자신의 부족한 사랑과 인간적 미숙함의 자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호가 명숙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이유를 사랑의 부족과 인간적 미숙함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편적인 판단일 수 있다. 오히려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구원에 대한 성호의 의식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통전적 사유로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성호의 통전적 인식은 그가 목사직을 사임하고 빈민촌 사역자로 나설 때 개인과 사회를 통합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사직을 사임하고 빈민촌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성호를 유일하게 “지난날에 묶어 놓는 것은 명숙의 병(황순원, 1989: 263)”이다. 그렇지만 성호에게 있어 치유되지 못한 명숙의 병은 단지 어떤 죄책감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성호는 빈민촌에 기거하는 중에 판자 담벽을 사이에 둔 채 살고 있는 뒷집 여인의 말을 듣게 되면서 명숙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금 환기하게 된다. 몸을 팔아서 먹고사는 뒷집 여인은 삶이 힘들다고 죽으려하는 손님인 청년에게 모질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빗대 말하면서 위안을 준다. 성호는 “한 여인의 가식 없는 진정이 한 청년으로 하여금 조출한 고리 하나를 달아놓게 한 것(황순원, 1989: 265)”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병을 앓고 있는 명숙의 고리를 찾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문한다. 성호는 인생에 있어 명확한 해결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웃에 대해 진정어린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해결에의 고리를 하나씩 달아가는 길(황순원, 1989: 265)”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 IV. 개인과 사회의 통합적 구원 추구

『움직이는 성』에서는 유랑민 근성의 극복 대안으로 통전적 구원사상이 제시되면서 목사에서 빈민촌 사역자로 변신한 윤성호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통전적 구원사상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구원까지 함께 강조한다. 즉 통전적 구원사상은 개인과 사회의 통합적인 구원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전적 구원사상은 내세지향적인 영혼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사회공동체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우고 나누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전적 구원사상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분리해서 생각할 성질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두 구원을 종합적으로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재식, 1990: 214).

이 소설의 주인공 윤성호는 처음부터 통전적 구원사상을 내면화하지는 못한다. 성호가 신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소명의식 때문이 아니라 불륜으로 말미암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였다. 성호는 자신을 양육해주던 정목사가 6·25 동란 때 행방불명되자 그의 가족들을 돌보아주던 중에 정목사인 아내인 홍여사와 불륜적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홍여사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녀 달된 태아를 지워버리기까지 한다. 성호는 자신이 지워버린 태아와 커가는 정목사의 아들 대식에게서 죄책감을 느끼고 신학교에 학사편입하게 된 것이다. 신학교에 들어온 후에도 성호는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타인은 물론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채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모두 비통전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성호의 비통전적 인식에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지병인 심장병으로 홍여사가 임종할 때 홍여사와 무언의 교감을 나누면서부터이다. 홍여사가 임종하는 순간 성호는 “우리는 용서받아요, 우리는 용서받아요(황순원, 1989: 33)”라고 무언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홍여사와 깊은 교감을 주고받는다. 그는 그 소리가 “자기 혼자가 아니고 그네와 합친 소리(황순원, 1989: 33)”임을 깨닫는다. 성호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홍여사를 기독교신앙 안에서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다. 그것은 홍여사의 아들 대식이나 실종된 정목사, 그리고 지워버린 태아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성호는 홍여사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과 통전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다<sup>23)</sup>. 성호는 예전에는 자신의 불륜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이를 견딜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주여, 전에 저는 우리들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끔 보호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이를 견딜 만한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황순원, 1989: 229).

진실한 회개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성호는 장로교 합동측에 속해 있는 노회에 출석하여 홍여사와의 숨겨진 관계를 사실대로 고백한다. 홍여사는 죽기 전에 자신의 수기에 고통스러운 참회의 고백을 남겨놓았는데 그 내용 중에 Y로 지칭되는 윤성호와의 관계도 적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호는 홍여사의 수기를 근거로 자신을 추궁하는 노회의 목사들에게 Y는 자신이 맞다고 확인해준 뒤 “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오늘 루 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황순원, 1989: 229)”라고 말한다. 성호는 친구 민구에게 “왜 체면에만 구애해서 우리들의 관계를 몇몇이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까(황순원, 1989: 232)”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를 후회한다. 그는 만일 세상에 홍여사와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면 한동안 주위의 비난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처럼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성호는 목사직을 사임한 후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빈민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때 홍여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같은 병실을 썼던 지연이 찾아온다. 지연은 낡고 혈은 누비작업복 차림의 성호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하며 자기 눈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영향으로 기독교신자가 되었던 지연에게 성호는 “생존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란 한갓 사치(황순원, 1989: 27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빈민촌에 와서 깨달았다고 말한다. 성호는 판자촌의 빈민들에게 먹혀들어가지도 않는 사적인 전도는 포기했다고 말한다. 그 대신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지내고 있는 빈민촌의 아이들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

23) 한승옥은 성호의 자아 아이덴티티가 홍여사와의 관계에서 허위의 가면을 벗어버림으로써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였고, 이 회복된 진정한 동일성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하나가 됨으로써 다시 사회 아이덴티티와도 일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한승옥, 1985, 2: 112).

에 신앙문제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 성호의 생각이다<sup>24</sup>). 이는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구원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통전적 사유의 견해인 것이다.

우선 고추 오이 토마토 싹을 널러구. 벽돌 짚든 개천가 한옆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볼 계획야. 여기 관관이 놀구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게. 놀구만 있어두 모르겠는데 나쁜 짓만 자꾸 배운단 말야. 그애들과 공동작업을 할 참이지. 아까두 얘기했지만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젼 해결 하구 나서 신앙문제구 뭐구 운운해야 될 거야(황순원, 1989: 272).

개인과 사회의 통합적 구원을 지향하는 통전적 구원사상은 만인사제의식에서 비롯된 직업적 소명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사상인 프로테스탄티즘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은 ‘소명(calling)’과 ‘직업(vocation)’ 등의 관념을 통해 구체화된다<sup>25</sup>). 이는 종교개혁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현실의 가치를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이 소설의 주인공 성호도 통전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된다. 성호는 빈민촌에 와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활의 실태들을 목격했다고 지연에게 말하면서 자신은 “이곳에 온 걸 다행으로 생각(황순원, 1989: 270)”한다고 고백한다. 또한 자신이 목사직에서 쫓겨났지만 사실은 “진작 떠났어야 했(황순원, 1989: 270)”었다고 담담히 토로한다. 이는 그가 목사직과 다른 직업을 성과 속의 이분법 가운데 나누고 있지 않기에 가능한 인식이다.

성호는 자신이 기거하며 빈민들의 자활을 돕고 있는 판자촌이 당국에 의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빈민들의 대표로 나서게 된다. 그가 빈민들을 대변하며 당국과의 협상 전면에 나서게 된 데에는 영이 엄마의 폭행 사건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영이 엄마는 제일교포 실업가와의 사이에서 영이를 낳았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실업가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유산을 한 뒤 재차 그 남자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

24) 『움직이는 성』은 현실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중시하고, 복음을 그 상황과 결부시키려는 상황화의 논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박남훈은 지적한다(박남훈, 2002, 6: 512).

25) 종교개혁의 사상은 평신도나 세속적 직업보다 ‘종교적’ 또는 ‘사제적’ 직업이 우월하다는 편견을 배척한다. 사제와 농부 간의 차별은 단지 기능의 차별이지 의미의 차별은 아니며 사제와 농부는 똑같이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봉사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John Dillenberger & Claude Welch, 2004: 313).

26) 프로테스탄티즘은 세속적인 것의 가치를 강조한다. 프로테스탄티즘에 있어서 세속세계는 하나님과 직접 연관성을 갖으며 이때 하나님은 모든 생활권에 있어서의 지존자이다(이민자, 1989: 46-48).



자 판자촌에 숨어들어와 술집 작부를 하며 살아가는 여인이다. 성호는 영이 엄마를 매질하며 끌고 가려는 제일교포 실업가의 아들을 판자촌의 아이들과 힘을 합쳐 쫓아낸다. 성호는 “아이들과 함께 청년을 쫓은 일에서 어떤 일깨움을 받은 듯한 느낌(황순원, 1989: 283)”에 젖는다. 그것은 “지금까지 막연하던 어떤 생각에 확신같은 것을 갖게 하는 그런 느낌(황순원, 1989: 283)”이었던 것이다. 성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판자촌 주민들과 자신을 한 공동체로 여기면서 개인과 사회를 통합적인 구원의 대상으로 뚜렷이 인식하게 된다.

마이크는 연신, 주동자를 붙잡아라, 주동자를 붙잡아라! 그런 속에서 성호가 뛰쳐나와 동네사람들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쳤다. 그의 몸에도 돌이 날아와 맞고, 가슴에 오물이 튀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고 동네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저들이 아니고 그 위엣사람들이라고 소리쳤다. 동네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나와 타월로 성호의 가슴에 튀 오물을 닦아냈다. 오물을 끼얹고 돌 던지던 게 멈췄다. 성호는 저쪽을 향해 몸을 돌려 소리쳤다. 위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모자 나오너라! 만약 이대루 나가다 사태가 악화되면 이쪽 책임이 아니란 걸 명심하시오! 주모자 나오너라! 성호는 자기 혼자만이 아닌 동네사람 전체의 힘을 감지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자진해서 트럭에 올랐다. 이튿날 판자촌 주민들은 조각조각의 판잣집을 뜯어가고 판에서 내준 트럭에 실려 남한산성 근처의 땅으로 운반됐다(황순원, 1989: 313).

위의 인용문에서 성호는 판자촌을 철거하기 위해 들이닥친 철거반원과 경찰대에 맞서 돌맹이와 오물을 투척하는 주민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을 대신해 당국과의 협상 대표로 나선다. 성호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저들이 아니고 그 위엣사람들이라고 분별시키면서 동시에 철거반원들에게는 사태가 악화되면 이쪽 책임이 아니란 걸 명심하라고 경고한다. 주모자는 나오라고 다그치는 마이크 소리를 들으며 성호는 자기 혼자만이 아닌 동네사람 전체의 힘을 감지하면서 자진해서 철거반원들의 트럭에 오른다. 결국 성호의 희생적인 노력에 힘입어 판자촌 주민들은 남한산성 근처의 땅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날뎌팔이도 할 수 없는 이주지에서 얼마 안 되는 권리금을 브로커에게 팔고 다시 서울의 새로운 빈민촌을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세들어 살면서 술집 작부를 하던 거리의 여인들도 새로운 이주지에 정착하지 못한다.

새로운 동네이름을 “별나라촌(황순원, 1989: 313)”으로 부르기로 한 성호는 이주지에서 빈민들의 자활을 도울 방안을 구상한다. 그는 우선 내년 봄에 이 부근에 도라지씨

를 뿌리겠노라고 지연에게 말한다. 빈민들에 대한 성호의 태도는 일방적인 구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빈민들과 거리의 여인들인 이웃을 성과 속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성호에게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 39)”는 성경의 말씀이 통전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통전적 인식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 37)”는 성경의 말씀 또한 통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공동체 속의 이웃을 자기 자신과 함께 통합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통전적으로 인식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V. 결론

황순원의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은 작가의 기독교적 세계관, 보다 구체적으로는 작가의 통전적 구원사상이 발현된 소설이다. 통전적 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통전적 구원사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각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제한되지 않고 개인과 사회와 역사와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 폭넓게 미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또한 통전적 구원사상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물론 정신의 지·정·의를 아우르는 전인적 구원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통전적 사유는 기독교의 핵심가치인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황순원이 구현하고자 한 통전적 구원사상의 밑바탕이 된 서북지역의 기독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 가운데 초교파적 복음주의와 교리적 포용주의, 그리고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 등이 결합된 특징을 보인다.

이 소설에서 비판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유랑민 근성은 작가의 통전적 구원사상과 대조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랑민 근성은 이 소설의 서사구조적 대립항이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과 기독교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다. 황순원이 이 소설에서 비판하고자 했던 비통전적 유랑민 근성은 현세와 내세, 개인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현세적인 구복만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정신적 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랑민 근성은 하

나눔사랑과 이웃사랑도 비통전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작가는 유랑민 근성에 사로잡힌 기독교신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아가페적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황순원은 이 소설에서 개인과 사회의 통합적 구원과 함께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구원을 모두 중시하는 통전적 구원사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질병 치유를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의 구원관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치유를 전인적인 관점에서 동일시하는 기독교 교파는 성령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통전적 합일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인데 황순원은 남한에서 오랫동안 오순절주의를 대표하는 교회에 출석하였다. 북한 서북지역의 장로교인이었던 황순원이 남한에서 오순절주의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과 사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구원까지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그의 통전적 사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통전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된다. 기성 교단의 목사에서 빈민촌 사역자로 변신한 주인공은 사회에서 소외된 빈민들과 거리의 여인들을 성과 속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이웃으로 인식하는 통전적 사유의 모습을 보여준다. 황순원이 이 소설에서 나타내고자 한 통전적 구원사상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구제와 치유, 자활이 강조되는 전인적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주인공은 사회의 이웃을 자기 자신과 함께 통합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통전적으로 인식하며 실천하게 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간하배 (2007).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고재식 (1990). “개인구원이냐, 사회구원이냐?”. 『기독교사상』 34(12). 203-214.
- 김명용 (2004). “통전적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종성·김명용·윤철호·현요한,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김미현 (1999). “유랑의 형식과 대위법의 언어-황순원의 『움직이는 성』”. 『현대문학』 530. 211-221.
- 김병익 (1973).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상황과 상상력』.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상태 (1998). “평안도 기독교 세력과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비평』 45. 171-207.
- 김윤식·김 현 (1992).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 김관호 (2007). “오순절주의 전인치유신학의 근거와 전망”. 『오순절신학논단』 5. 53-86.
- 노승욱 (2005). “유랑성의 소설화와 경계의 수사학-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9. 139-167.
- \_\_\_\_\_ (2010). 『황순원 문학의 수사학과 서사학』. 서울: 지식과교양사.
- 류광현 (2010). “황순원 장편소설의 기독교적 상상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류대영 (2001).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박남훈 (2002).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토착회 양상-김동리의 <무녀도>·<을화>와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0. 493-518.
- 박배식 (1998). “황순원 소설의 구원의식”. 『人文論叢』 5. 69-85.
- 박아론 (1991). “충신의 신학적 전통: 박형룡의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58(3). 44-68.
- 박용규 (2005). “황순원 소설의 개작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배현성 (2002). “오순절 성령론에 나타난 통전적 신학 방법론과 그 신학적 함축성”. 『성령과 신학』 18. 169-202.
- \_\_\_\_\_ (2004). “영산의 전인적 영성 이해”. 『성령과 신학』 20. 81-105.
- 안중철 (2010).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오유권 (1985). “靑山의 白鶴”. 황순원 외. 『말과 삶과 自由』.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기서 (1977). “小説에 있어서의 象徴問題-黃順元의 『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19·20. 587-598.
- 이민자 (1989). 『개화기 문학과 기독교사상 연구』. 서울: 집문당.
- 임영천 (1998). “황순원 『움직이는 성』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 167-197.
- 정영훈 (2007). “황순원 장편소설에 나타난 악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21. 269-299.
- 조경현 (2006). 『韓國 初期 北長老敎宣敎師들과 平壤 長老會神學校』.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조형·박명선(1985).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 비교”. 변형운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 까치.
- 최창국 (2004). 『기독교영성의 통전성』. 『개신논집』 4. 293-326.
- 한승욱 (1985). “黃順元 長篇小說 연구-罪意識을 中心으로”. 『崇實語文』 2. 85-117.
- 허순길 (2008).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영문.
- 허호익 (1993). “구원론의 통전적 이해”. 『신학논단』 21. 401-436.
- 황순원 (1972). 『유랑민 근성과 시적 근원』. 『문학사상』 2. 315-321.
- \_\_\_\_\_ (1989). 『움직이는 城(黃順元全集9)』.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2). 『목넘어마을의 개/곡예사(黃順元全集2)』. 서울: 문학과지성사.
- Dillenberger, John & Welch, Claude (1988). *Protestant Christianity*. 주재용 · 연구  
홍 역(2004).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역사와 신학』.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 Rhodes, Harry A. (1934).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최재건 역(2009). 『미국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ABSTRACT

### A Study on Holistic Thought of Salvation in Soon-Won Hwang's *The Moving Castle*

Seung-Wook Roh(University of Seoul)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on holistic thought of salvation in Soon-Won Hwang's novel, *The Moving Castle*. Born in northwestern areas of Korea where Christianity was propagated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in Korea. Soon-Won Hwang internalized Christianity educated in Christian schools. The Christianity in northwestern areas of Korea had been influenced by the north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and it had an aspect of interdenominational evangelism, doctrinal magnanimity, and anti-imperialistic nationalism. Soon-Won Hwang criticized shamanism as well as Christianity because he tried to criticize unholistic and nomadic spirit that was focused on seeking secular blessings. Both the salvation of flesh and spirit and also that of the individual and society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holistic thought of salvation, which was characterized in this novel. Wholistic salvation of soul and body is in concordance with the perspective of salvation from Pentecostal church that Soon-Won Hwang who came from North Kora, had attended for a long time in South Korea. The holistic thought of salvation that he tried to show in this novel is revealed in the shape of holistic salvation, which emphasizes the salvation of individual soul and the relief, healing, and self-support of the poor and the neglected.

Key Words: holistic thought of salvation, northwestern areas, the north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Pentecostal church, shamanism, nomadic spirit, holistic salvation